

제 4 강 성서는 언제 누구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되는가?

3강 복습

- 신학의 불가능성과 과제
- 구원과 창조의 하느님
- 유일신의 의미
- 삼위일체의 탄생 배경과 의미
- 초월과 내재
- 종교적 인간과 전능하신 하느님
- 사랑이신 하느님

일주일 동안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 강좌의 제목이 뭔지 기억 나시나요? 벌써 4주가 지났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 그리고 제자의 길”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존재하고, 그 종교에 속한 이들을 신자라 부른다면 신자들의 삶을 통해 기독교라는 종교의 가치가 드러날 것입니다. 사실 신자와 제자는 같은 존재의 다른 이름이라 할 것인데, 신자와 제자를 나눈 것은 기독교의 신자와 예수의 제자 사이에 불일치가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공부를 통해 여기 모인 신자들께서 예수의 제자이신지를 성찰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서가 되겠는데요. 지난 주와 지 지난 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하느님에 대해 함께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현재 우리는 하느님과 예수를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인식으로 파악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예수께서도 부활 승천하신 후 우리에게 2천년전의 역사적 인물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으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나 하느님을 알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확실한 길은 성서를 제대로 읽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만난 이들의 증언과 예수의 제자들의 선포를 통해서만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다가갈 수 있기에 성서는 무척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서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그 전에 지난 주 강의를 복습해 볼까요?

지난 주 주제는 “예수의 하느님과 우리의 하느님”이었습니다. 하느님 이야기를 흔히 신학(神學)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하느님”(神)과 “학문”(學) 사이는 사실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할 때는 언제나 하느님과 인간의 말 사이의 거리를 기억하고, 기본적으로 하느님에 대해 인간이 뭔가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음을 말씀드렸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에 대해 말하고 있고, 그 말로 삶의 위안이 되기도 하고, 희망

이 생기고, 힘도 연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 말에 힘 입어 남에 대한 폭력도 불사하고, 또 그 말이 족쇄가 되어 불행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 이야기 그 자체는 불가능하더라도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말들을 성찰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고 더 나아가 제대로 신학하기를 통해 인간과 모든 생명의 충만함을 도모하는 것이 신학의 과제임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느님에 대해 성서는 뭐라 말했는지 첫 번째로 살폈지요. 우선 구약 성서의 하느님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구원과 창조의 하느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신 개념과 삼위일체 개념이 갖는 의미에 대해 말씀 드렸지요. 오늘날 왜 우리가 골치 아픈 삼위일체 개념을 말해야 되는지 누군가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요~ 삼위일체에 대해 꼭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 물어보면 지난 주에 배우신 대로 삼위일체의 역사적 생성과정에 대해 설명하시고, 삼위일체 개념의 핵심은 예수에게 있다는 것, 그 분 덕분에 인간을 상대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구약성서의 구원과 창조도 인간과 관계 맺는 분으로서의 하느님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밖에 하느님의 초월과 내재에 대해서도 살폈습니다.

제가 제일 관심을 두었던 것은 사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사랑의 하느님의 차이였는데요. 우리가 전능한 하느님을 자꾸 말하는 이유는 사실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내 한계를 뛰어넘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의 발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한편으로 “사랑의신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이런 우리의 언어 사용을 볼 때도 하느님의 본성은 사랑이지 전능이 아니라는 것, 전능은 속성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능을 말하려면 그것은 사랑의 전능이며, 정의와 함께 가는 전능이기에, 하느님은 불의를 행하지 못하시고, 또 사랑 때문에 제멋대로 하는 전능성을 포기하신다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모두가 인간의 언어임을 자각할 때, 어쩌면 하느님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좋을지 모르지요~ 지난 주 복습은 이 정도로 하고요.

4강 성서는 언제 하느님 말씀이 되는가?



그림 출처, <http://m.blog.daum.net/sunghwa/5336339>

그럼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성서 구절 하나씩 말씀해 주시고요, 왜 그 구절이 좋은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는 그 말씀을 통해 진짜 살아계신 하느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다는 체험도 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진짜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알려 주시면 좋고요~~ 자! 지난 주에 하느님 그림 발표하지 않으신 분들부터 몇 분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작해 볼까요?

000 : 요한복음 17장 21~23절,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며,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 참 좋습니다. 초월하시는 하나님과 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요. 초월하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마누엘 되셨다는 것도 요즘 느낍니다. 40여년을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삽니다.

000 : 저는 전도서가 참 좋아요. 그리스도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헛되고, 헛되다. 세상 만사 헛되다”로 시작하는 이 전도서가 그냥 참 좋아요.

한문덕 : 교우님의 말씀을 들으니 갑자기 김영민이라는 분이 쓰신 <봄날은 간다>라는 책의 서문이 떠오르네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익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 그러나 익어도 죽는다는 것.” 헛됨을 사유하는 것! 그것이 주는 깊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000 :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회사 생활을 한다는지, 가정, 교회에 모든 갈등이 있을 때 견디고 이겨내고 했던 것 같습니다.

000 : 저는 성서에 나오는 족보가 제게 감동을 줍니다. 역사를 이어 선조들을 기억하는 족보를 읽다보면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긴 역사의 한 연결고리 같고, 부모나 조상에 대한 감사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000 : 저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부분이 좋아요. 명확하게 자신의 신념을 있는 그대로 보이는 독심 같은 것이 느껴지고요. 그런 베드로가 멋있어 보였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서 구절을 통해 이미 여러분은 두 가지 경험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이 성서를 읽으시지만, 동시에 성서를 읽고 감동을 받고 하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편 성서가 여러분을 읽어내는 듯한 묘한 체험을 하게 되고, 성서를 읽으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깨닫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성서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성서를 왜 읽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누가 한 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지만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서가 아니고서 하느님을 만날 수는 없나요?

물론 성서 말고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길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성서와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두 길이라고 하듯이, 기도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 어떤 이는 자연의 경이스러운 모습을 통하여, 역사적 체험을 통하여, 개인의 경험 속에서, 또는 그리스도교 전통과 교회공동체의 활동 속에서도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존 맥쿼리라는 신학자는 신학의 원천을 경험, 계시, 성서, 전통, 문화, 이성으로 구분하기도 했지요. 이 모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학의 원천

- 경험
- 계시
- 성서
- 전통
- 문화
- 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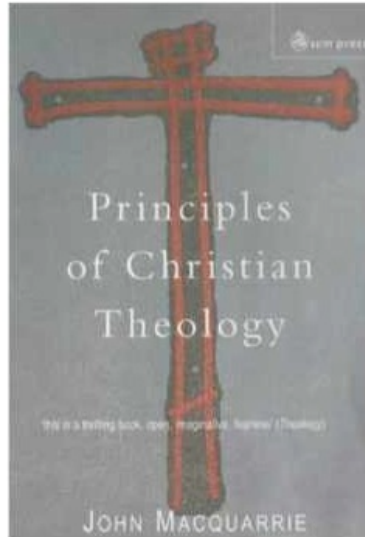


그림 출처, <http://www.amazo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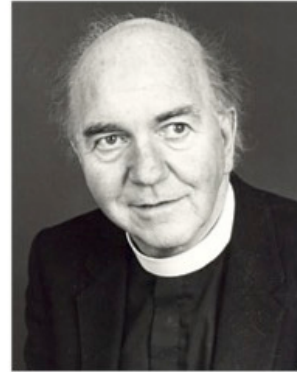


그림 출처, <http://www.nytimes.com>

그러나 무엇보다 성서는 그 자신 명징하게 그리스도인의 양식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에 걸리듯이 성서를 모르면 신앙의 영양실조에 걸리는 것이지요. 저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성숙도는 성서를 제대로 읽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에 따라 좌우된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교의 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길은 성서밖에 없습니다. 유대인 예수의 사상과 신앙적 배경을 위해서, 그리고 신약성서의 저자들의 신앙적 특징과 고민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1성서(구약)도 반드시 필요하지요. 예수의 행적을 그린 복음서와 그 이후 초기 제자들의 편지 등, 유대-기독교 전통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서를 읽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서를 제대로 읽으려면 성서가 어떤 책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책에 대한 이해 없이 성서를 읽으면 성서를 잘못 읽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시대에 성서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성서를 과학책으로 읽는 것입니다. 성서에 나오는 모든 사건을 있는 그대로 사실로 여기면서 읽는 것이지요. 성서에서 과학적인 발견이나 아이디어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성서는 과학책은 아닙니다. 또한 성서를 도덕 교과서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성서는 도덕책도 아닙니다. 역사가 들어 있지만 역사책도 아니고,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지만 꾸며낸 소설과는 또 다르지요. 성서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의 체험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느님-인간의 관계 속에서 체험적 주관의 기록이 성서가 됩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주관에 사로잡힌 경험과는 다릅니다. 주관적 해석으로 투사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공동체를 넘어서는 타자와의 만남의 경험, 즉 체험 속에서 개인이나 그 공동체가 깨달은 주관적 사태를 기록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교회에서는 고백의 책이고, 개인에게는 깨달음을 주는 명상의 책이 될 수 있고, 또 수많은 학문적 자료를 포함하고 있기에 많은 학자들에게는 교육의 책이 될 수도 있겠으나, 아직 만나지 못한 낯선 체험이 녹아 있다는 측면에서 성서는 길들여지지 않은 책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성서”의 정체성

- 성서는 과학책(Science, information)이나 역사책(Fact)도, 도덕책(Law, Custom)도 아니다. 소설과 같은 상상의 작품(fiction)도 아니다.
- 성서는 인간들이 살면서 **체험**하고 **알게 된** 하느님에 대한 **고백**이다. (神-人 관계, 체험적 주관)
- 그러므로 성서는 하느님을 만나고 알게 하는 **표지판**이며 **안내판**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다 (경전, Canon). (그리스도인의 삶의 **意味**)

그림 출처, <http://mirror.enha.kr/wiki/플라스크>

하느님을 만났다고 하는 온갖 체험들의 기록들이 천년 동안 지속되었고, 성서라는 책으로 확정된 이후에도 매우 오랜 시간을 지났기에 성서 저자들이 만난 하느님 체험과 오늘 우리들이 성서의 기록을 읽고 만나는 하느님 체험의 간격 때문에도 여전히 성서는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그리스도교가 경전으로 삼은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안내판이자 삶의 기준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성서조차도 인간의 언어의 기록이므로 성서가 영원한 기준이 되고 다른 모든 삶이 성서에 맞추어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의미에서 규범이나 기준이라기보다 성서와 독자의 상호내재적 독해 속에서 발견되는 하느님 뜻이 중요하고, 그럴 때 반드시 필요한 자료로써 유대-기독교 전통에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문서라는 의미에서 기준과 안내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단순하게 말하면 역시 유대-기독교 전통에서 성서를 모르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성서를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서를 읽어야 할까요?

히브리서와 디모데후서에 보면 성서는 인간의 생각을 꿰뚫어 밝혀 내는 힘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가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서를 읽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정보의 취득이 아닙니다. 성서를 읽는 독자의 삶의 변화가 가장 큰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논어집주 서설에 정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논어를 읽고 전혀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 똑같은 사람이 있고, 논어 한 두 구절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논어라는 책이 참 좋다는 사실을 아는 이가 있고, 논어를 읽고 수족을 어디에 둘지 몰라 춤을 추며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있다.” 성서도 마찬가지로 아닌가요. 우리가 성서를 읽기 전과 읽고 난 후에 내 삶과 내 존재에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성서를 읽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존재의 변화를 위한 성서 읽기를 위해 우리는 성서를 읽

는 다양한 방법을 익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서 자체가 그 때-거기의 이야기이고 우리는 지금-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성서를 읽고 실천하기 위해 서로 논쟁과 토론도 필요한 것이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서를 대하여 차분히 성찰하는 시간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성서를 읽는 목적

-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 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 냅니다. (히브리서 4장12절)
-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디모데후서 3장 15-17)
- 程子曰: 讀論語有讀了全然無事者, 有讀了後其中得一兩句喜者, 有讀了後知好之者, 有讀了後直有不知手之舞之足之蹈之者.(論語集註序說 中에서)



그림출처, <http://kingscrosschurch.com>



그림출처, <http://blog.daum.net/leeteukplus>



그림 출처, <http://www.art2me.org/images-art/08-gamsang/05-Baroque/image016.html>



그림 출처, <http://dabia.net/xen/free/271025>

성서를 읽는다는 것

- 내가 성서를 읽는 것인가?
- 성서가 나를 읽는 것인가?
- 발신자 – 수신자 : 경청의 중요성
- 해석학적 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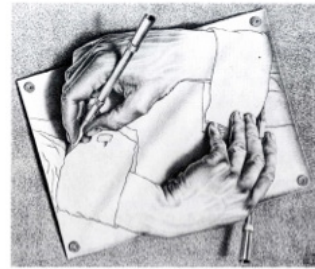


그림 출처, <http://cafe.daum.net/kmsomi>

위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우선 성서를 읽다 보면 내가 성서를 읽는 것인지 성서가 나를 읽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첫째 내가 좋아하는 구절들이 이미 나의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둘째 성서를 읽다 보면 내 맘에 들지 않는 성서구절이 나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즉 성서가 나를 읽어내고 내 길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를 읽을 때에 내 마음대로 성서말씀을 해석하지 말고 성서가 뭐라고 하는지, 성서 본문의 원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 말씀에 경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서가 발신자고 내가 수신자라면 발신자가 본래 하려고 했던 말의 의미를 충실히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뒤에 성서비평학을 통해 그런 것들을 알려 드리겠지만 일단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서를 읽는 것은 성서를 통해 하느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해석학적 순환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내가 성서를 읽고 그것을 통해 성서를 알고 그렇게 안 성서지식과 이해를 기반으로 또 성서의 모르던 부분을 더 알아가는 과정이지요. 마치 직소퍼즐을 맞추는 작업과 유사한데요. 처음에 한 조각을 가졌을 때는 전혀 전체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사하고 인접한 조각들을 하나 둘씩 맞추다 보면 나뭇 전체 그림을 상상할 수 있고 그 그림을 상상하면서 세부적인 곳을 채워나가게 되지요. 성서 읽기도 이런 방식으로 애매 모호하고 아리송하던 하느님의 뜻이 성서를 꾸준히 읽어나가다 보면 큰 그림으로 다가 오고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해석학적 순환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성서와 삶의 순환입니다. 성서 읽기 내의 해석학적 순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가지고 삶을 살다보면 성서의 말씀대로 삶이 살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 성서를 보게 되고, 그렇게 삶과 성서가 서로서로 비추주면서 삶의 영역과 말씀의 영역이 더욱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하나의 해석학적 순환이라 할 것입니다. 안병무 선생님께서는 질문하지 않으면 성서는 답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질문은 성서를 읽는 중에도 생기지만 삶에서도 생기는 것이지요. 오히려 삶에서 떠오른 질문들이 더욱 절실하지요. 그 질문을 안고 성서를 깊이 파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서가 하느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 올테니까요. 그럼 성서를 어떻게 읽어나가야 할까요?



어떻게 읽어야 하나?

- “성서는 하느님의 말씀이다”라는 말에 대하여
 - 축자영감설, 성서무오설, 문자영감설 등등
 - 문자적 읽기의 피해: 비합리성(성찰의 부재, 범주의 오류), 교리적 독선, 실천적 무신론자, 종교적 욕망의 이상화 -> 근본주의
- 성서의 세계와 오늘날 독자의 세계의 거리
 - 역사적/지리적/언어적/문화적/환경적 간격
- “성서는 인간의 언어로 쓰인 하느님의 말씀이다”
 - 의미(知/情/意)와 실천

우선 성서를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그동안 잘못 읽었던 것에 대한 교정이 필요한데 요 성서에 대한 가장 큰 오해들은 성서가 문자 그대로 하느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서는 지금 무슨 글로 쓰여있나요? 그렇습니다. 한글입니다. 한글은 한국인의 글입니다. 성서의 원문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쓰였는데요. 이 모두 히브리 사람, 그리스 사람 즉 사람의 언어입니다. 성서가 인간의 언어로 쓰였다면 인간의 언어가 갖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 문화적 특성, 언어 자체의 한계 등이 있을 텐데 이런 모든 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성서가 하느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큰 왜곡을 불러 옵니다. 정직하게 꼼꼼히 성서를 읽다보면 성서 자체 내에 엄청난 모순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것을 안 그런 척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은 인간의 지성을 억압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성서가 하느님의 말씀이다”라는 말이 지닌 의미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알아보아야 합니다. 성서는 비록 인간의 언어로 쓰였지만 축자영감설이나 성서무오설을 굳이 주장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하느님의 뜻이 담겨 있는 하느님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서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동안 성서를 읽어 왔던 방식이 교리적 읽기이거나 종교적 욕망의 투사였다는 사실조차 깨닫기 어렵습니다. 이성을 사용하지 않고 맹목적인 성서읽기를 하다보면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서도 믿어야 하기에, 실제로는 성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면서도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어 버립니다. 성서가 인간의 언어로 쓰였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 성서저자들의 세계와 오늘 우리의 세계와의 차이와 간격을 생각하게 되고, 그 간격을 넘어서 오늘 하느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새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적 성서읽기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서를 제대로 읽고 이해하기 위해 현대의 성서비평학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간단하게 성서비평학의 방법론들을 알려 드리고 잠시 뒤에 성서를 직접 찾으면서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비평학



- 문자 그대로의 의미 알기: 원전비평(사본비평, 본문 비평)
- 성서 뒤의 세계(창문): 자료비평(출전비평), 양식비평, 전승사 비평, 편집비평, 종교사비평, 사회학/사회사적 비평
- 성서 안의 세계(그릇): 문학비평, 수사비평, 정경비평, 구조주의 비평
- 성서에 비춘 나(거울): 독자반응비평, 이데올로기 비평(여성, 흑인, 아시아, 민중, 퀴어 비평, 생태신학 등)

성서를 읽다 보면 있는 말 그대로 쉽게 다가오는 구절이 있는가 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마치 수수께끼 같은 구절도 있고, 기적 이야기와 같이 오늘날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도 등장합니다. 성서가 생긴 이래, 대략 1800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서에 쓰인 내용이 글자 그대로 모두가 사실이며 진리라고 보거나,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성서를 읽어 왔습니다. 상징적 의미로 이해하려고 했던 이유는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는 너무 난해하거나, 비현실적이고 과장되었거나, 본문 자체가 하나의 비유적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알레고리적 해석과 유형론적 해석이 성서를 읽는 주요한 방법론으로 자리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해석자의 선입관을 본문에 집어 넣는 오류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배경과 문맥, 문자적 표현을 무시하고, 해석자마다 자의적 해석을 하기 때문에 본문에 대한 통일된 의견을 갖기 어렵고, 본문이 가지는 고유한 의미를 상실하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각각 성서를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자신의 나름에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해석이 처음 저자들의 의도나 생각이었는지는 진지하게 따져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성서를 역사적 산물로 생각하게 된 계몽주의 이후 성서의 복잡한 형성과정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성서를 읽게 됩니다. 지난 200년 동안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성서 읽기는 오늘날 성서의 의미를 훨씬 풍요롭고 깊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모든 것을 다 하기는 어렵고, 성서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강좌가 또 개설되어야 할 것이기에 여기서는 큰 틀에서 간단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성서가 하나의 책이라면, 그리고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한 고백적 기록이라면 성서 저자가 왜 이런 문서를 남기게 되었는지,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런 삶 속에서 성서를 기록하였다면 이 성서를 기록하면서 무엇을 기대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손에 들린 이 성서가 만들어지기까지, 그리고 이런 성서를 만든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찾아내는 작업을 주로 한 성서비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큰 틀에서는 역사비평이라고 하

고, 여기에는 원저자가 쓴 처음 본문을 찾아내고 재구성하는 본문비평, 성서 저자가 각 문서를 쓸 때 기존에 있던 기록들을 참조하였음을 전제하고, 그 출전이 된 문서들을 가려내는 일을 하는 자료비평, 성서에 실려 있는 각 전승 단위들의 기원 및 그 처음 의미와 저자들의 삶의 자리를 밝혀내는 양식비평, 자료비평과 양식비평을 토대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자료의 편집과정을 연구하여 편집자의 의도를 밝히려는 편집비평,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며 성서 저자와 초기 기독교의 사회적 정황과 세계, 조직 등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는 사회학적 비평이 포함된다.

역사 비평이 성서가 기록되기까지의 배경과 예수와 전승자, 초기 교회 공동체의 삶의 자리와 사회적 정황에 관심을 두었다면 문학비평은 원저자의 본래 의도가 무엇이든, 일단 문학작품이 완성되면 그 작품 자체로 의미를 지닌다는 신비평의 입장을 수용하여 등장한 비평입니다. 즉 문학비평은 성서 텍스트의 완결된 형태에 초점을 맞추고, 본문의 전체적인 통일성을 강조하며, 본문 자체를 최종적으로 보고, 의사소통 모형에 근거를 두어 성서 텍스트 그 자체를 연구하는 비평방법입니다. 여기에는 구조주의 비평, 수사비평, 서술비평 등이 포함됩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 성서의 의미를 찾는데 있어서, 성서를 지금의 자리에서 읽고 해석하는 독자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는 학자들이 여기저기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동안 성서 해석을 주도해 온 이들은 주로 독일어, 불어, 영어권의 구미 계통의 중산층 백인 남성들이었음을 지적하면서 이제까지의 성서 해석이 대체로 그들의 입장을 반영하였다고 비판하면서 성서 해석이 독자가 처한 사회 경제적 상황, 인종, 성적 차이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비평방법이 새로 등장하고, 이를 이데올로기 비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데올로기 비평은 독자 반응 비평이 한층 더 깊어 진 것으로서 남미의 해방신학적 성서 읽기라든가, 흑인 신학, 여성신학, 민중신학 등에서 새로운 눈으로 성서를 대하고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200년의 성서 읽기를 간략하게 논별해 보자면 성서 뒤의 세계와 성서 속의 세계, 그리고 성서 앞의 세계를 탐구하는 일련의 과정들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상징해석학이나, 심리학적 분석, 그리고 비블리오 드라마를 통한 참여적 성서해석 방법론들까지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방법론들을 어떻게 성서에 적용하는지 살짝 살짝 살펴 볼까요?

성서읽기의 실제



- 사도행전 8장 37절(우째 이런 일이?)
- 로마서 12장 20절(무슨 말인가?)
- 빌립보서 4장 6-7절(체험과 영적 이해)
- 마가복음 4장 1-9절(이 비유가 하고자 하는 말은?)
- 마가복음 11장 12-25절(버트란트 러셀이 몰랐던 것)
- 마가복음 1장 1절과 로마서 1장 17절(고전 15장 3-5절; 롬 1장 1-4절 참조. 복음이란 무엇인가?)
- 마태복음 10장 5-15절과 마가복음 6장 7-13절(무슨 차이가 있을까?)
- 누가복음 10장 38-42절(주어진 본문 뚫어지게 살피기)
- 열왕기상 3장 16-28절(누구에게 손을 들어 줄 것인가?)

사도행전 8장 37절을 펴서 읽어 보세요~. 이번에는 사도행전 15장 34절을 또 읽어 보세요. 개역한글판에는 둘다 ‘(없음)’이라고 되어있고, 공동번역 성서에는 아예 생략되어 있고, 표준새번역에는 (없음)이라고 한 다음 각각에 주가 붙어 있습니다. 8장 37절의 주는 다음과 같지요. <어떤 사본들에는 37절의 내용이 첨가되어 있음. “37. 빌립이 말하였다.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때에 내시가 대답하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15장 34절에도 <어떤 사본에, 34. ‘실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가 있고 또 35. ‘바울과 바나바도’라 하였음>라는 각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본’이란 성경 본문으로 채택되지 못한 열등한 사본이지요. 원문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고대 사본들에는 하나 같이 이 구절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대 사본들이 발견되기 전에 공인된 본문으로 여겨지던 사본에 근거를 두고 장절을 만들어서 인쇄본으로 출판한 최초의 성경책인 스테파누스(Stephanus 또는 Robert Estienne, 1503-1559)의 『그리스 성경』 4판(1551년)에는 이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본문비평에서는 이 구절이 후대에 삽입되었다고 판명하고 성서에서 뺀 것이지요. 위에서 말씀 드렸지만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본에서 가장 원문에 가까운 사본을 찾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원문을 재구성하는 비평을 본문비평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본문비평의 작업을 거쳐서 가장 권위 있는 신약성경 본문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네스틀레-알란트’(Nestle-Aland)¹⁾ 신약성경 27판이고요. 구약성서는 1967년에 나온 ‘슈투트가르트 히브리 성경’(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입니다.

자~ 이번에 로마서 12장 20절을 펴보시겠어요. 뭐라고 쓰여있나요?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개역한글판 성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해가 안 되죠? 개역한글판은 직역의 장점이 있고, 다양한 어휘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현대인들에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큰 단점이 있죠. 특히 그 당시 문화나 속담 같은 경우는 설명이 없으면 알아 들을 수가 없지요. 옛날 고대에 머리에 숯불을 담은 그릇을 이고 몇 킬로를 가게하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머리에 숯불을 이고 가면 뜨거워서 얼굴이 빨개지겠지요. 로마서 본문에 쓰인 이 말은 그런 풍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다는 말은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원수에게 선을 행하면 원수가 부끄러워서 얼굴이 벌겋게 된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서를 읽을 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모르면 이런 구절을 읽기가 힘들지요.

이런 예를 하나 더 드리자면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여기를 읽어 보면 그리스도인이 세상 법정에서 송사를 하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구절에서 바울이 진짜 말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같은 교인끼리는 교회에서 해결하고 세상 법정까지 나아가지 말라는 말일까요? 역사 연구와 고고학적 탐구를 통해 1세기로 가보면 고린도는 그리스 도시였지만, 고린도의 체제나 정치, 법, 정부는 로마를 모델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형사법은 상대적으로 공정했던 반면, 민사소송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분쟁하는 소송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재판관이나 배심원에게 뇌물을 준다는지, 권력의 자리를 약속한다는지 하여 재판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동료 그리스도인을 민사법정으로 끌고 가는 부류는 부유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비난하고 비판한 것은 우월한 부와 권력, 혈연지연 관계, 사회적 영향력이나 사업의 관계망을 이용하여 재판에서 승리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의 부적절한 행위였습니다. 역사비평의 중요성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성서의 해석 범위를 정해주고 있

1) Eberhard Nestle, 1851-1913 공인된 본문; Kurt Aland, 1915-1994, 책임편집

어 개인의 자의적 해석을 범하지 않도록 돕지요.

다음은 빌립보서 4장 6-7절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표준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 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 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 넘는 하나님의 평화”는 어떤 상태일까요? 이런 구절은 참으로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를 모시고 직접 들어봐야 이해가 될 듯한 구절입니다. 성서는 신앙고백적 언어이기에 그리고 체험의 언어이기에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정보를 습득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지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가복음 4장 1-9절을 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씨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씨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돌밭에,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떨어졌고, 또 어떤 것들은 좋은 밭에 떨어져서 많은 수확을 얻었다는 이야기! 다들 아시죠? 이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뒤에 나와 있는 마가의 알레고리적 해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진짜 의도를 알지 못합니다. 씨는 말씀이고, 여러 종류의 밭은 교인들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하지요.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 당시로 소급해서 올라갈 수 있다면 이 비유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열매 맺지 못한 씨들과 열매를 맺은 씨들과 대조 속에서 결국 하나님 나라는 성공할 것이라는 희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실패를 생각하고 씨를 뿌리지는 않습니다. 많은 수확을 기대하지요. 일부의 실패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성공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겠지만 결국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양식비평을 통해 이 본문의 삶의 자리와 이 구절을 해석한 뒤의 이야기의 삶의 자리가 다르다는 것을 밝혔고, 따라서 그 본래 의미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도 유명한 이야기지요. 예수님이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저주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두고 버트란트 러셀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예수님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버트란트 러셀은 고전학자가 아니었기에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속 뜻을 읽지 못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의 상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지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해보니 거기는 강도의 굴혈이었죠.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뿌리로부터 썩은 예루살렘 성전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새롭게 탄생한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며, 서로 용서와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앞뒤로 비슷한 이야기를 놓고 그것을 전체로 한 주제의 덩어리로 만듭니다. 방금 보았던 무화과나무저주 사건은 무화과 이야기가 성전 청결을 감싸고 있지요. 또 마가복음에 보면 소경을 고친 이야기가 예수의 수난이야기와 제자의 따름이라는 커다란 주제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런 문학적인 장치를 러셀이 알았다면 그런 무식한 소리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마가복음 1장 1절을 볼까요?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여기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복음이 뭘니까? 기쁜 소식이요. 그렇지요.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요? 복음이라는 말이 여기 말고 바울 서신에도 엄청 많이 나

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복음과 마가복음 저자가 말하는 복음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복음이라는 말의 원어는 그리스어고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고대 그리스에서, 또 로마 시대에 어떤 의미로 쓰인 걸까요? 고대 그리스에서 유앙겔리온은 전쟁에 대한 승리의 소식이나, 신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쓰였습니다. 마라톤 전쟁 아시지요? 그리스 병사가 42km를 뛰어와서 이겼다는 소식을 전하는 데 그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이었지요. 그런데 이 말이 로마시대에 오면 오로지 황제와 관련해서만 쓰입니다. 황제가 아들을 낳았다거나, 황제가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문으로 들어오면 뽕빠레와 함께 로마시민들이 유앙겔리온을 외쳤지요! 로마 황제에게 쓰는 이 말을 바울 사도와 마가는 예수에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벌써 로마에게 저항하는 뜻을 보여 주지요. 바울 사도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서 복음을 보았다면, 마가는 예수의 삶과 가르침, 특별히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섬기는 예수의 희생에서 복음을 봅니다. 특히 마가복음서가 쓰일 당시 로마황제는 새로 등극한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었고, 이 새 황제에 대한 찬가와 존칭이 높이 울려 퍼질 때 마가는 진짜 복음은 예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서의 단어를 당대 다른 종교나 문화의 역사 속에서 비교 분석해보는 것을 종교사 비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서를 해석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지요~

다음은 마태복음 10장과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파송 장면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볼까요? 성서를 순서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 이렇게 읽어나가는 것도 좋지만 서로 펼쳐놓고 비교해가며 읽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지요. 제자 파송 장면을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서와 마가복음서는 서로 다른 것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마가에서는 지팡이를 가져가라고 하는데, 마태는 가져가지 말라고 하고, 마가에서는 전대에 돈을 지니지 말라고 하는데, 마태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전을 넣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비교해 보면 마태공동체는 마가공동체 보다는 훨씬 부유했고, 도시에 있었고, 학문적이었던 공동체라는 사실이 밝혀 집니다. 이렇게 성서를 꼼꼼이 비교해 읽으면 당시의 공동체 상황도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8-42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청하는 이야기인데요. 여행 -> 한 마을 ->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 -> 주님의 발치로 구성되는 공간의 집중은 예수님의 선교 여행에서 제자 마리아를 얻는 것으로 초점이 모아지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각각의 인물의 특징도 살피고, 배경도 분석하고, 시간적 구성을 보면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지가 더 잘 드러나게 됩니다. 마르다의 초청은 좋은 일이고, 그의 음식 준비도 잘한 것이지만 동생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마음이 갈라지고, 심지어 주님께 명령하는 사태에 이르는 과정과 예수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서 성서가 주는 맛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일로 마음을 쓰며 걱정한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음식 준비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동생을 보며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처음 초청했던 좋은 마음이 상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갈래의 마음이 된 것을 말씀하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왕에게 하느님의 지혜가 있다는 28절의 말씀 때문에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그런 선입견 없이 여기 살아 있는 아이의 엄마 입장에서 이 구절들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고대에 왕은 백성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였고, 일반인들이 평생가야 한번 볼까 말까 한 멀리 있는 사람이었지요. 이 여자들이 찾아가서 왕 앞에서 제대로 얘기나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여자의 사회적 지위를 창녀라고 표현함으로써 매우 낮은 계층으로 나타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이를 졸지에 빼앗긴 여성의 억울함에 대해

왕은 너무나도 잔인한 판결을 내립니다. 신하에게 칼을 가져오게 하였고, 그 칼로 아이를 반 갈라 서로 나눠주라는 판결문! 이것이 합당한 판결입니까? 만약에 진짜 엄마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다면 죄없는 어린아이의 목숨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 이다라는 선입견을 제외하고 성서를 읽어 보면 솔로몬은 그리 좋은 왕이 아니었던 것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후궁을 몇 천명이나 들인 것 하며, 이방 문화의 수용, 또한 여로보암의 반란 등을 생각했을 때 솔로몬은 전제 군주로 독재를 했을 확률이 높지요. 오늘 재판은 냉정한 독재자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이를 반 갈라 나눠주라고 한 것이지요. 아이를 살리고자 노력한 것은 왕이라기 보다 오히려 진짜 엄마의 희생이었지요. 죽일 수 없으니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라고 한 것입니다. 어찌면 솔로몬은 그 때서야 “저 여자가 진짜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누가 읽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서의 사건 그 자체도 중요하고, 성서의 문맥도 중요하지만 그 성서를 읽는 사람의 경험, 문화적 배경과 정치사회적 상황, 심리적 상태도 성서를 읽는 행위와 해석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실습을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고민의 지점



- 성서해석의 역사: 알레고리와 유형론->역사/문학/독자반응/포스트모던/해석공동체 윤리비평
- 의미의 풍부함 : 비평방법을 포함하고 넘어서기
 - 거룩한 독서
 - 성서전체를 볼 수 있기에
 - 이경해경(以經解經: 가난한[자의] 방법),
 - 각자의 삶의 다양성 속에서
 - 살아계신 하느님의 신비 속에서

자~ 여러 가지 비평 방법을 통해 성서를 열심히 읽었는데, 하느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배운 어떤 한가지가 만능열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읽어보고 가장 내 삶과 공동체의 활동에 적실한 말씀을 찾는 것이지요. 성서 읽기가 자신의 욕망의 투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귀착된다면 알레고리나 유형론적 접근도 무조건 버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39권과 27권의 성서를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에 성서의 저자보다도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성서를 통해 성서를 해석하는 이경해경의 방법도 쓸 수 있고, 각자의 삶의 다양성 속에서 새롭게 얻는 깨달음도 있을 것입니다. 성서 비평 방법론이 이런 성서의 의미 찾기를 더욱 풍성하게 해 줄 것입니다.

진리는 어디에?



지금까지 함께 배운 것을 요약정리해 본다면 우리는 성서를 읽을 때 성서와 성서가 생긴 배경, 그 모두를 포함한 전통, 오늘날의 독자로써 나와 나의 생활 세계, 그리고 나의 전통 모두를 함께 생각하면서 성서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유한한 삶 속에서 “이것이 하느님의 명백한 뜻이다”라고 함부로 결정할 수는 없습

니다. 다만 위와 같이 진지하게 성서를 읽고, 또 공동체가 함께 동의한다면 그 순간 그 공동체와 개인의 삶을 결정하는 하느님의 뜻은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렇게 결정된 하느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험이야말로 다시 성서를 제대로 읽게 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참고문헌

민영진, <성서바로읽기>, 대한기독교서회, 2001.
 민영진, <바이블 FAQ>, 대한기독교서회, 2006.
 마커스 J. 보그, <성경 새롭게 다시 읽기>, 연세대출판부, 2004.
 한스 R. 베버, <성서 나를 읽는 책>, 예영커뮤니케이션, 2006.
 월터 J. 웅,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2009.
 김재성 외, <성서를 읽는 11가지 방법>, 생활성서, 2001.
 레이몬드 E. 브라운, <성서에 대한 101가지 질문과 응답>, 바오로딸, 2001.
 크리스토퍼 홀, <교부들과 함께 성경읽기>, 살림, 2008.
 앤서니 티슬턴, <성경해석학 개론>, 새물결플러스, 2012.

민경식, <신약성서 우리에게 오기까지>, 대한기독교서회, 2008.
 김창락, <귀로 보는 비유의 세계>, 한국신학연구소, 1997.
 리차드호슬리, <크리스마스 해방>, 다산글방, 2000.
 서중석, <복음서 해석>, 대한기독교서회, 1996.
 로버트 M. 브라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한국신학연구소, 1992.
 필리스 트리블, <수사비평>, 한국기독교연구소, 2007.
 토마스 머튼, <성서의 문을 여는 마음>, 다산글방, 2001.